

#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 變遷에 관한 研究(二)

### —廣州一帶 陶窯址를 中心으로—

尹 龍 一一

#### 三) 굽 형태별 分析

陶窯址 調査에서 가장 많이 수집되는 陶片은 굽이 달린 접시나 沙鉢, 大接片으로 아마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기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各窯址 別로 수집된 陶片의 굽을 調査해 보면 서로 다른 형태가 時代에 따라 다르게 製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굽의 형태에 따라 어느 정도 陶磁의 時代區分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굽의 형태를 명확하게 區分하기에는 복잡한 점이 많아 廣州郡一帶의 陶窯址에서 發見되는 굽을 다음의 네 종류로 크게 區分하여 그 굽이 出土되는 窯址의 製作時期, 期間, 그리고 특징에 관해 알아보자.

굽의 형태에 따라 分類하면,

- ① 대마디굽
- ② 오목굽
- ③ 수직굽
- ④ 넓은굽

이 있다.

#### ① 대마디굽 (圖三二)

대마디굽은 一般的으로 竹節굽이라고 부르며 粉靑沙器에 많이 나타나 있다.

굽의 모양이 대마디처럼 굽나리의 모서리를 깎았고 굽안바닥이 약간 들쭉해 있는 형태이며 주로 胎土와 같은 비집돌 四~五개를 빚어 굽고 포개어 燻造하였다.

굽과 굽주위는 施釉되지 않았고 內底에는 圓心이 파여있으며 釉色은 灰色, 灰白色, 靑白色, 淡靑白色, 靑色, 雪白色을 띄고 있으며, 口緣은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外反된 모습을 하고 器壁은 두꺼워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胎土비집돌 받침은 粉靑沙器 製作에서 받아 들인듯 하며 포개어 燻造한 자국이 그릇 內底에 남아있다.

白磁에 있어 비집돌 받침의 대마디굽 白磁는 전국에서도 특히 京畿道 廣州郡一帶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대마디굽 白磁는 그 製作時期가 朝鮮朝 一五世紀, 一六世紀를 通해 많이 製作되었으며 一六世紀 末에 변화를 갖고와 一七世紀 初부터 오목굽으로 바뀌어 製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一五世紀의 대마디굽 白磁는 기벽이 두껍고 목직하며 비집돌받침이 큰편인 데 비해 一六世紀의 대마디굽 白磁는 기벽이 얇고 가벼우며 비집돌받침이 작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마디굽 白磁窯가 三~四개소에서 五~六개소가 집중적으로 널려있는 곳 中心에는 「天」「地」「玄」「黃」「別」「左」「右」등의 銘文이 出土되는 가는 모래 받침의 수직굽 白磁로 匣鉢을 使用하여 正교하게 燻造한 가마가 있어 中心窯와 주변窯와의 관계를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이들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는 匣鉢을 使用하여 정밀하게 燻造하고 銘文이 出土되는 中心窯는 주로 御用之器를 燻造한데 대해, 이들 비집돌받침의 대마디굽 白磁窯로서 포개어 燻造한窯는 주변窯로서 王宮所用의 그릇 및 당시 士大夫 所用의 白磁로서 製作되었다고 생각

된다.

廣州一帶에서 發見되는 대마디굽 白磁窯址를 들어 보면  
樊川里一號、二號、三號、四號、八號、一一號、一二號、一三號、一四  
號、一五號窯址

道馬里二號、三號、四號、五號窯址、

武甲里一號、三號、四號、五號、六號、七號、八號窯址

牛山里一號、二號、三號、四號、五號、六號、七號、八號、一〇號、一

一號、一二號、一三號、一六號窯址

觀音里一號、二號、七號、九號、二〇號、二一號窯址

梧田里一號、二號、三號、四號、五號、六號窯址

新岱里一號、二號、一五號、一六號、一七號、一八號窯址

鶴東里一號、六號窯址

陶水里一號、二號、三號、四號、五號、六號窯址

歸歎里一號、二號、三號、四號、五號、六號窯址

悅美里一號、二號、三號窯址

昆池岩里三號窯址、炭筏里六號窯址

元堂里一號窯址、酸梨里一號窯址

建業里一號窯址、長深里一號窯址

五香里一號、五號窯址로서, 총 七九個所에 달한다.

② 오목굽(圖三三)

굽안바닥이 오목하게 파여있어 오목굽, 안굽이라고 불리우며 굽은 모  
래받침이나, 드물게 비집돌 받침으로 構造하였다.

그릇의 內底는 작은 圓心이 깎여지다 흔적도 없여져가며 口緣은 작게  
外反되다가 바로 세워진 모습을 갖고 굽다리는 안으로 숙여진 모습을  
하고 있다.

굽안바닥이 불룩하게 突出된 모습에서 突出부분이 없여져 간다.

胎土는 雜物이 많이 섞인 粗質이며 釉色은 灰青色、灰色、靑색으로  
포개어 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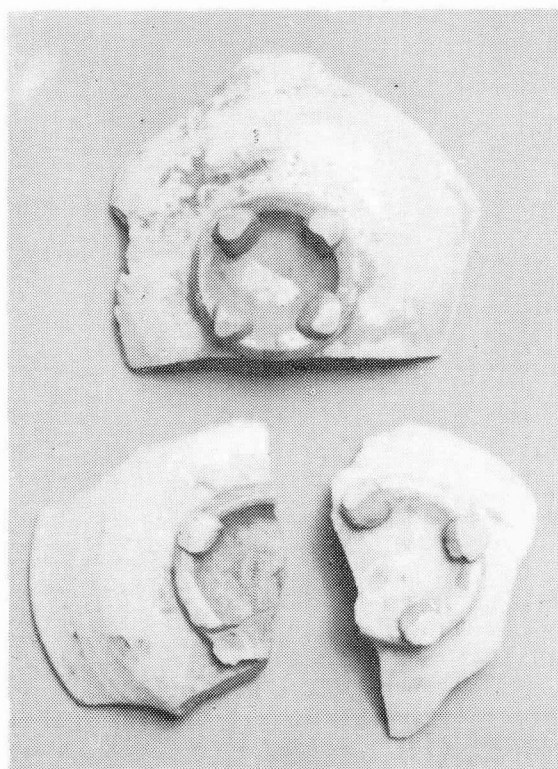


圖 32. 대마디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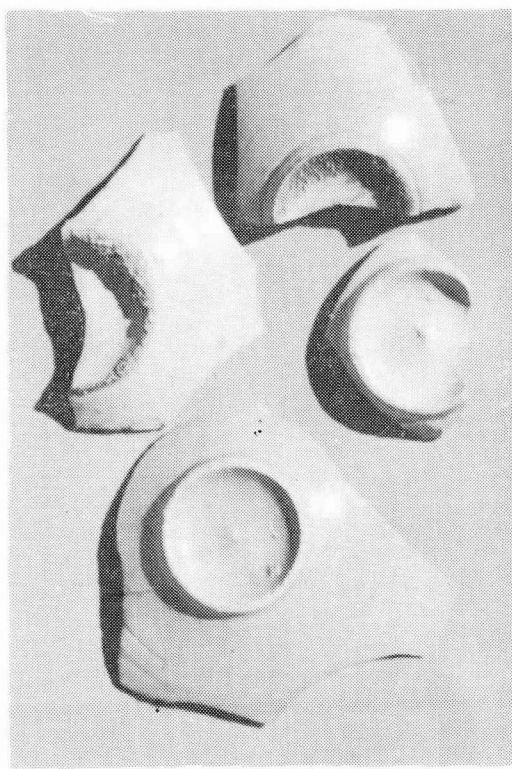


圖 33. 오목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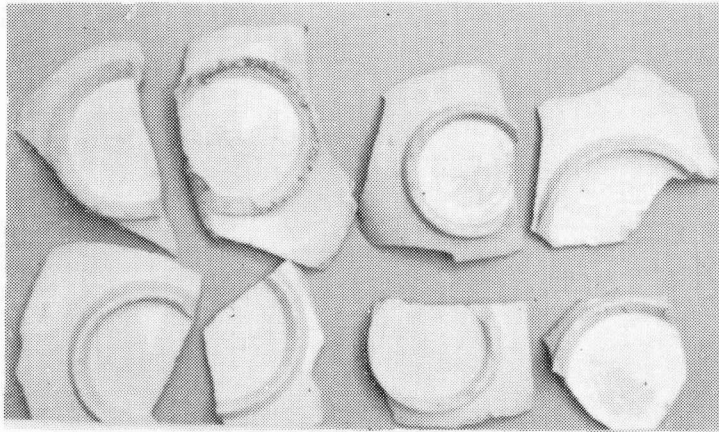


圖 34. 수직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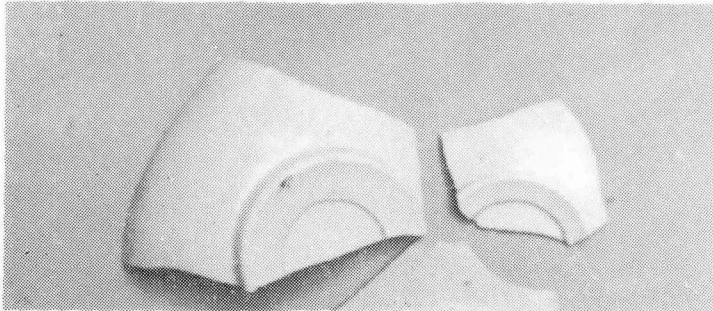


圖 35. 넓은굽

오목굽 白磁가 出土되는 窯址의 製作時期는 一六世紀 末로서 亭支里 一帶에서 과도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一七世紀 初부터 본격적으로 製作되어 一八世紀 中엽경까지 제작되었다고 믿어진다. 이 오목굽 白磁窯址의 특징은 가는 모래받침의 匣鉢을 使用하여 정밀하게 製作된 수직굽의 「干支左」 「干支右」의 銘文이 出土되는 白磁窯의 주변에서 三~五개소, 六~九개소로서 널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이는 一五~一六世紀에 수직굽 白磁 주위에 비질돌받침의 白磁窯가 주변窯로서 발전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一七, 一八世紀에 있어서 오목굽

白磁窯 역시 주변窯로서 발전되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오목굽 白磁의 胎土는 雜物이 섞인 粗質로서 포개어 燻造되어 대마디굽 白磁와 마찬가지로 當時 宮中 所用과 士大夫 所用으로 쓰여졌다 고 믿어진다.

이들 오목굽 白磁窯의 中心에는 干支가 出土되는 中心窯가 있어서 그 一帶의 窯의 製作時期를 보다 명확히 해 준 점에서 매우 귀중한 資料라 할 수 있으며 특히 鐵繪 白磁片이 많이 發見되어 一七世紀에 盛行했던 鐵繪 白磁의 年代를 立證해 준다 하겠다.

오목굽 白磁가 出土되는 廣州 一帶의 窯址로는

亭支里 一號, 二號, 四號窯址

炭後里 二號, 三號, 四號, 五號窯址

鶴東里 七號, 八號, 一〇號, 一一號, 一二號窯址

祥林里 三號, 五號, 六號窯址

仙東里 二號, 三號, 四號窯址

松亭里 二號, 三號, 四號, 五號, 七號, 八號窯址

柳寺里 一號, 二號, 四號, 五號, 六號, 七號窯址

新垆里 三號, 四號, 五號, 六號, 七號, 一一號窯址

池月里 二號, 三號窯址

宮坪里 二號, 三號窯址

觀音里 一四號, 一五號, 一六號窯址

五香里 二號窯址

로서 총 四五個所에 달한다.

③ 수직굽 (圖三四)

굽이 바로 선 형으로, 가는 모래받침으로 匣鉢을 使用하여 정교하게 製作되었다. 포개어 燻造한 例가 없으며 굽 안바닥도 施釉되었고 굽 머리도 말끔히 되었다.

시대에 따라 內底의 圓心이 넓게 꺾였다가 차차 줄어들다 흔적만 남기는 變化를 가져오며, 口緣 역시 크게 外反되다 바로 선 모습으로 바

귀여 지기도 하고 굵다리 역시 조금씩 변화를 보여준다.

조선시대 白磁 中 가장 우수한 것은 거의 모두 수직굽이 出土되는 窯址 産으로 믿어진다. 靑華白磁、鐵繪白磁、靑磁、銘文이나 干支가 陰刻된 白磁가 出土되는 곳으로 이들 수직굽이 出土되는 곳은 廣州에 있어 分院이 머물렀던 곳이라 믿어진다.

靑白色、乳白色、淡白色、灰白色、乳白色 등의 釉色、壺、瓶、盞、盒、鉢、접시、전접시、祭器、벼루、硯滴、筆筒 등 多樣한 器形과 굵 역시 넓고 낮으며 안으로 숙여진 것, 두껍고 얇은 것 등 多樣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수직굽 白磁가 제작된 시기는 分院이 設置되던 一五世紀 後半頃부터 一六、一七、一八、一九世紀 朝鮮 末까지 變함없이 일관되었던 것 같으며, 「天」「地」「玄」「黃」「別」「左」「右」「干支右」「干支左」 등의 銘文이 出土되는 수직굽 白磁窯址는 官窯로서 司饗院의 沙器製作所인 分院이었다고 믿어진다.

廣州郡 一帶에서 수직굽이 出土되고 窯址로는

樊川里五號、六號、七號、九號窯址

道馬里一號窯址

武甲里二號、九號、一〇號窯址

牛山里八號、九號、一四號、一五號、四號窯址

梧田里一號窯址、二號、三號窯址

陶水里四號、八號窯址

大雙嶺里一號、二號、三號窯址

觀音里三號、五號、六號、八號、一〇號、一一號、一七號、一八號、一

九號、二一號窯址

昆池岩里一號、二號、四號、五號窯址

亭支里 三號窯址

炭筏里 一號、三號窯址

鶴東里 二號、三號、五號、七號、一〇號、九號窯址

祥林里 一號、二號窯址

仙東里 一號窯址

松亭里 一號、六號窯址

柳寺里 三號窯址

新岱里 八號、九號、一〇號、十一號、十二號、十三號、十四號、十八號窯址

池月里 二號窯址

宮平里 一號窯址

五香里 二號、三號窯址

金沙里 一號、二號、三號、四號、五號、六號、七號窯址

分院里 一號、二號窯址

등으로 총七十二個所에 달한다.

#### ④ 넓은굽 (圖三五)

굽바다에 해무리굽(日暈文굽, 蛇目)처럼 넓은 굽으로 高麗 靑磁의 初期 畧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넓은굽은 朝鮮時代 陶磁에서는 유례가 없으며 다만 窯址 調査를 통해 접시나 鉢, 盞의 片으로서 發見된다.

넓은 굽의 製作時期는 十七世紀 前半頃으로 祥林里一號窯址、仙東里一號窯址、松亭里二號窯址、柳寺里三號窯址에서만 出土되고 있다. 分院 窯에서만 發見되며 새로운 資料로서 주목되는 굽의 형태이다.

#### 四) 陶磁種類別 分析

廣州郡 一帶의 窯址에서 朝鮮初에서 末期에 이르기까지 製作된 陶磁種類로는 白磁、白磁象嵌、靑磁、靑磁象嵌、靑華日磁、鐵繪白磁、辰砂白磁、粉靑沙器 등이며, 이중 가장 많이 製作된 陶磁는 白磁로 거의 대부분의 窯址에서 出土되고 있어 꾸밈이 없는 白色의 世界를 즐겼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는 듯하다.

각 陶磁 別로 그 특징과 製作時期, 製作場所 등을 알아 보자.

(i) 靑磁

(ii) 靑磁象嵌

(iii) 白磁象嵌

(iv) 靑華白磁

(v) 鐵繪白磁

(vi) 粉靑沙器

로 分類할 수 있다.

(i) 靑磁

朝鮮時代 靑磁에 對한 研究는 一九六五年에 있었던 廣州郡 退村面 道馬里窯址의 發掘을 계기로 하여<sup>28)</sup> 그 존재여부와 특징이 밝혀졌었다.

그에 依하면 朝鮮時代靑磁와 靑磁象嵌은 그 製作時期가 朝鮮 初부터 十五世紀後半까지 播造된 것 같으며 특징으로는 白磁胎土 위에 靑磁釉를 施釉하였고 그 製作된 窯址가 道馬里와 道장골 등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調査에서 朝鮮時代 특유의 靑磁와 靑磁象嵌이 出土되는 窯址가 총 二二個所에서 發見되어 그 製作時期와 製作期間, 場所, 특징에 관해 좀더 많은 知見을 주었다.

朝鮮時代 靑磁의 특징으로는

白磁胎土 위에 靑磁色이나 淡靑色의 靑磁釉가 施釉되었고 釉에는 미세한 釉氷裂이 나있으며 주로 접시, 대접, 祭器 등의 器形이 많다. 文樣으로는 素文이 많으나 드물게 陰刻으로 梅花文, 花文이 있거나 陽刻으로 거치문 등이 있는 祭器片이 많이 發見된다.

白磁胎土에 靑磁釉가 施釉된 이들 朝鮮靑磁는 一五、一六世紀頃에는 연한 靑色이 나타나는 맑은 靑磁釉가 一七世紀로 가면서 점차 靑褐色, 暗靑色, 暗靑色으로 變해 가면서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朝鮮靑磁는 모두 分院窯라고 생각되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窯址에서 多樣한 器形의 白磁片들과 함께 少量이 出土된다는 점에 서 그 使用이 특수한 용도에 쓰여지기 위해 播造되었다고 믿어진다.

「光海君日記」光海君八年(一六一六年)四月一二日の 記錄에

司饗院沙器는 大殿은 白磁器를 東宮에서는 靑磁器를 使用한다, 內資 內贍, 禮賓寺에서는 「舊例에 따라 靑紅阿里書를 使用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東宮用으로 靑磁를 使用하기 위해 播造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그 製作時期로는 靑磁와 함께 出土되는 白磁窯址의 時期區分에 依해 一五世紀, 一六世紀, 一七世紀中葉頃까지 모두 二二個의 窯址에서 製作되었다고 믿어진다.

壬亂以後 日本에 붙잡혀갔던 陶工 中 처음으로 一六一六年 泉山에서 白磁陶石을 처음 發見하여 九州 有田에 있는 天狗谷窯에서 白磁를 播造하는 데 成功한 陶工 李參坪의 天狗谷窯가 최근 發掘調査되어 一七世紀 初에 播造되었던 陶磁에 관해 많은 새로운 知見을 주었다.

發掘된 遺物中, 朝鮮의 靑磁, 靑華白磁 등과 함께 靑磁瓶이 出土되어 주목되었는데 이는 朝鮮에서도 一七世紀 中葉까지 靑磁가 製作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朝鮮時代 靑磁가 出土되는 窯址로는 樊川里九號, 道馬里一號, 武甲里二號, 牛山里四號, 九號, 觀音里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 二一號, 陶水里四號, 新岱里一八號, 鶴東里五號, 八號, 大雙嶺里一號, 昆池岩里五號, 亭支里三號, 祥林里一號, 炭後里一號, 仙東里一號, 松亭里三號, 等 모두 二二個所에 달하고 있다.

(ii) 靑磁象嵌

靑磁와 함께 靑磁象嵌은 廣州에 있어 白磁窯인 道馬里一號窯址, 武甲里二號窯址, 觀音里二一號窯址에서 靑磁, 白磁와 함께 少量이 出土되고 있다.

주로 香爐, 花盆片이 發見되며 文樣으로는 梅花文이 정제된 모습을

로 白象嵌으로 나타나 있다.

窯址의 製作年代로 보아 一五世紀後半頃까지 播造되었다고 믿어진다.

(iii) 白磁象嵌

白磁象嵌片이 出土되는 窯址로는 樊川里一號、二號、牛山里四號、五號、二號、武甲里二號、觀音里一一號窯址로 모두 七個所에 달한다.

樊川里一號、二號窯址와 牛山里三號、四號、五號窯址에서는, 비집돌 받침의 대마디굽 白磁窯址로 白磁片和 함께 草文、蓮花文、唐草文 등이 黑象嵌된 대접, 鉢, 瓶, 沙鉢, 접시片이 發見된다. 그리고 武甲里二號窯址와 觀音二二號窯址에서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에 線文이 象嵌된 白磁黑象嵌片이 白磁와 함께 出土되어 주목을 끈다. 일부 미세한 釉水裂에 乳白色의 釉色으로 보아, 白磁象嵌에는 二가지 種類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製作時期는 一五世紀前半頃으로부터 中葉에 이르는 사이에 白磁窯에서 一部 製作되었다고 믿어진다.

(iv) 青華白磁

青華白磁片이 出土되는 窯址로는 樊川里五號、九號窯址、道馬里一號窯址 武甲里二號窯址、牛山里 九號窯址、觀音里一一號窯址、新岱里一八號窯址、大雙嶺里一號窯址、仙東里一號窯址、松亭里一號窯址、金沙里一號、二號、三號、四號、六號、七號窯址、分院里一號、二號窯址로 모두 一九個所에 달한다.

青華白磁片은 전체 窯址에 비해 그리고 다른 種類의 陶磁에 비해 小量이 發見되며 一八、一九世紀의 金沙里、分院里窯에 와서 많이 發見되고 있다.

窯址의 分布에 依하면 青華白磁는 一五世紀 후반경부터 一六世紀、一七世紀에 있어 白磁窯址에서 小量이 일부窯에서 製作되었으며 一八世紀에 들어와서 一九世紀後半頃까지의 金沙里、分院里窯에서 많이 製作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青華白磁는 分院이라는 官窯의 窯

에서만 出土되며 모두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窯에서 수많은 匣鉢片和 함께 小量 發見되고 있으나 아마도 많은 窯址가 發掘 調査된다면 보다 많은 곳에서 出土되리라 믿어진다.

(v) 鐵繪白磁

鐵繪白磁片이 出土되는 窯址로는 觀音里一〇號、一七號窯址、祥林里一號窯址、仙東里二號窯址、松亭里一號窯址、二號窯址、柳寺里三號窯址 新岱里四號、五號、六號、七號、八號、九號、一〇號、一二號、一三號、一四號窯址 池月里一號窯址、宮坪里一號窯址、金沙里三號窯址로 모두 二〇個所의 窯址에서 出土되고 있다.

鐵繪白磁의 製作時期는

一六世紀後半頃인 觀音里一〇號窯址에서 墓誌牛이 出土된 例가 있어 一六世紀末부터 더욱 많이 製作되기 시작하여 一七世紀初부터 中葉、後半頃까지 多量으로 만들어지다 一八世紀前半頃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干支가 出土되는 一七世紀의 모든 窯에서 鐵繪白磁片이 出土되고 있으며 특히 一七世紀 中葉頃인 新岱里一帶의 窯에서 많이 만들어져 廣州에 있어 新岱里窯址는 鐵繪白磁의 産地였음을 알 수 있으며 壺瓶 등의 鐵繪白磁가 대량으로 제작되어 鐵繪白磁의 製作時期、製作場所 특징을 理解하는데 귀중한 資料를 간직한 곳이다.

이들 鐵繪白磁는 굵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白磁窯址에서 많이 出土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vi) 粉靑沙器

廣州一帶에서 粉靑沙器가 出土되는 窯址로는 樊川里一〇號窯址、道馬里六號窯址、觀音里二三號窯址、鶴東里四號窯址、雙東里一號窯址、陶水里四號、六號窯址 등 모두 七個所이다.

雙東里一號와 鶴東里四號窯址는 靑磁末期에 가까운 粉靑沙器의 양식

을 갖고 있고 樊川里一〇號 등 五개소의 窯址는 粉靑沙器印花文으로 짙은 灰靑色의 釉가 施釉되었다. 胎土미질을 받침과 모래받침으로 燻造한 것이 있으며 製作時期는 모두 一五世紀로 추정된다.

## 二、分析資料의 綜合

分析資料로서 文獻記錄에 나타난 窯址의 추정과 窯址出土의 銘文分析, 굽형태에 따른 分析과 陶磁種類別 分析을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이들 分析資料들을 綜合하면 廣州郡 一帶에 設置되었던 分院의 變遷과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分析資料들을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一、文獻記錄에 나타난 窯址

一五世紀 前半頃의 窯址로는

「伐乙川」―「樊川里」

「所山」―「牛山里」

「羔峴」―「陶水里」

「石掘里」―「鶴東里」

「草伐里」―「과학동」

「草峴」―「雙東里」 窯址로 추정되며,

一七世紀 後半頃의

一六六五―一六七六, 新垈里 分院

一六七七? 池月里(塔立洞)分院

一八世紀 前半頃의

一七一七―一七二〇, 五香里(五陽洞)分院

一八世紀 中葉頃

一七五二―一七八三, 分院里 分院

등이 文獻記錄과 實際窯址調査에서 밝혀졌다.

## 二、窯址 出土의 銘文

樊川里九號, 道馬里一號, 武甲里二號, 牛山里九號, 梧田里一號, 新垈里一八號 窯址에서 共通의 으로 「天」「地」「玄」「黃」銘이 陰刻된 陶片이 發見되어 이들 各 窯址들이 서로 變遷移動하였다고 믿어지며, 그 製作時期는 分院이 廣州에 設置되는 世祖, 成宗年間부터 一六世紀 前半頃까지라고 믿어지며 그 뒤를 이어 「左」「右」「別」銘이 觀音里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 窯址, 亨支里三號 窯址, 大雙嶺里一號 窯址 등이 一六世紀 後半頃에 製作되었다고 보이며 干支가 出土되는 時期는 一七世紀 初부터 後半까지 七個所의 窯址에서 發見되고 있다.

처음 나타나는 炭筏里窯는 一六〇六―一六一二年

鶴東里窯는 一六一三―一七一年

祥林里窯는 一六三一―一三九年

仙東里窯는 一六四〇―一四九年

松亭里窯는 一六四九―一五六年

柳寺里窯는 一六五七―一六四年

新垈里窯는 一六六五―一七六年

前後한 時期에 製作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三、굽형태에 따르는 窯의 製作時期

미질을 받침의 대마디굽은 一五세기 一六세기를 通해 수많은 窯址에서 製作되었다고 믿어지며, 그들 대마디굽 가마 中心에는 「天」「地」「玄」「黃」「左」「右」「別」銘이 出土되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의 中心窯가 있다.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은 一六세기 末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一七세기에 주로 많이 만들어지다가 一八세기 중엽경에는 사라져가며 특히 오목굽은 干支가 出土되는 中心窯와 주변窯에서 주로 發見되며 鐵繪 白磁片이 함께 出土되고 있다.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은 一五세기 중엽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一六, 一七, 一八세기를 거쳐, 굽에 일부 變化는 있으나 조선 末까지

조선시대 초기간 제작되었다. 이들 가마는 分院으로 추정되는 많은銘文과 靑華, 鐵繪의 우수한 白磁가 거의 이 가마형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수직급의 白磁는 전국에서도 특히 廣州地方에서 주로 만들어졌으며 分院磁器의 기본형이었다.

넓은 범위는 一七세기前半頃に 주로 干支가出土되는窯에서만出土되며 現存遺物은 遺例가 없다.

#### 四、陶磁種類別分析

靑磁는 白磁胎土 위에 綠靑色, 綠褐色으로, 一五세기 一六세기, 一七세기 중엽까지 官窯로 생각되는 白磁窯址에서 少量이出土되고 있다.

白磁象嵌은 一五세기에 주로 製作되었다고 보여지며 粉靑沙器 역시 廣州一帶에서 七곳서出土되며 印花文이 주이다.

靑華白磁는 分院이라 생각되는 가는모래받침의 수직급 白磁窯址에서出土되며 一五, 一六, 一七세기에는 少量이出土되나 一八, 一九세기의 金沙里, 分院里窯에서 많이 製作되었다고 보여진다.

鐵繪白磁는 一六세기後半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一七세기에 수많은窯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며 一八세기에 들어서서는 점차 적게 만들어진 것 같다.

특히 一七세기 후반경의 新垈里一帶의窯에서 鐵繪白磁가 가장 많이 製作되었다고 보여진다.

## V、分院의 成立과 變遷

京畿道 廣州郡一帶에 設置되어 朝鮮時代 初期부터 末期까지 운영되었던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의 成立과 變遷과정을 알아보자.

### 一、分院의 成立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의 分院이 廣州地方에 언제부터 設置되기 시

작하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몇가지 기록과 자료에 依해서 그設置時期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一、一四二四年(世宗六年)에 調査가 착수되어 一四三二年(世宗一四年)에 完成되고 一四五四年(端宗二年)에 편찬 수록된 「世宗實錄地理誌」의 廣州牧 陶磁所의 記錄과 一四八一年(成宗一二年) 조사가 착수되어 一四八六年(成宗一七年)에 完成된 「東國輿地勝覽」의 廣州牧 陶磁所에 관한 記錄을 中心으로 전반적인 變化를 비교해보자,

「世宗實錄地理誌」의 陶磁所의 기록은 一五세기前半期の 모습을 알려주는 데 비해 「東國輿地勝覽」의 陶磁所의 記錄은 五〇年 후인 一五世紀後半頃の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世宗實錄地理誌」에는 陶器所가 一八五個所, 磁器所가 一三九個所로 磁器所가 陶器所보다 적어 전체의 四三%에 달한다.

그러던 것이 東國輿地勝覽에는 陶器所가 一二個所, 磁器, 沙器所가 三五個所로, 磁器, 沙器所가 陶器所보다 많아 전체의 七五%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一五세기前半頃에는 粉靑沙器라고 생각되는 陶器所가 白磁라고 생각되는 磁器所보다 전체 三三四個所 중에서 五七%에 달하는 一八五個所로 많이 製作되고 있었으나 一五세기後半頃에는 粉靑沙器라고 생각되는 陶器所가 白磁라고 생각되는 磁器, 沙器所보다 훨씬 적어져 전체 四七개소 중 二五%에 달하는 一二個所에 머물고 있으며 磁器, 沙器所는 七五%에 달하는 三五個所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一五世紀前半頃の 주류인 粉靑沙器의 제작이 一五세기後半頃에는 粉靑沙器의 제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白磁가 많이 製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현재 遺存하는 年代가 확실한 粉靑沙器와 白磁의 資料를 수집하여 分析해보면 一五세기前半頃에는 거의 모두가 粉靑沙器 中心의 資料가 남아 있으나 一五세기 중엽(세조, 성종年間)을 경계로 粉靑沙器 대신 白磁로 바뀌고 있음을 현재 알려져 있는 年代가 확실한 資

世宗實錄地理誌와 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陶磁所의 數

出典		世宗實錄地理誌									東國輿地勝覽				
地域	分類 品質	磁器所				計	陶器所				計	磁器	沙器	陶器	計
		上	中	下	不明		上	中	下	不明					
京畿	畿清	1		13		14		6	12	2	20	5	1	8	14
忠慶	尚尙		12	11		23	6	30	2	38	7	1	3	11	
全羅	尙羅	3	8	26		37	6	28		34	4	1	1	6	
全江	原海		15	12	4	31	8	23	8	39	10	1		11	
黃平	安海		2	2		4		10		10	1			1	
咸安	吉威		6	6		12	6	11		17	3			3	
			1	12		13	1	10	1	12	1			1	
				2	3	5		6	9	15					
計		4	44	84	7	139		33	130	22	185	31	4	12	47

料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다.

地域別로 分布 모습을 보  
면 一五세기 전반경에는  
慶尙道、全羅道、忠清道순  
으로 京畿道는 慶尙道の  
半정도의窯數였으나 一五  
세기 후반경에는 京畿道、  
忠清道、全羅道、慶尙道の  
순으로 京畿道는 慶尙道  
의 배가 넘는窯數로 불어  
났다.

그리고 京畿道 廣州牧  
에만 『司饗院 官員이 每年  
畫員을 데리고 와서 御用  
之器를 監造한다』고 註를  
달아 놓았다.

이는 一五세기 前半頃の  
世宗實錄地理誌의 陶磁所  
가 三二四개소인데 大抵  
五〇年이 지나 기록된 一  
五세기 後半頃の 東國輿地  
勝覽에는 四〇개소로 크게  
줄어든 變化가 나타나는  
것과 아울러

沙器匠 三八〇名을 規定  
한 「經國大典」 工典이 一  
四六九年(睿宗元年)에 만

들어졌음에도 유의해야 될 것이다. ②4

以上の資料를 검토해보면

世宗實錄地理誌가 편찬된 一五세기 前半頃에는 國家가 必要로 하는 陶  
磁器를 전국의 陶磁所에서 歲貢、別貢으로 充當하여 왔으며 그 중 粉靑  
沙器가 白磁보다 많았었다.

그러나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一五세기 後半頃에는 國家가 必要로 하  
는 陶磁器를 전국의 陶磁所에서 歲貢、別貢으로 充當하지 못할 만큼  
朝鮮朝 初期의 諸理念이 빛나가고 있고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 크게 노  
출되어 중대처럼 陶磁所의 歲貢、別貢만으로는 充當하기 어려워 司饗院  
에서는 스스로 서둘러서 沙器匠을 法制的으로 소속시키고 官御用 沙器  
燔造를 직접 담당하여, 서울과 가까운 「品上」의 生産地인 廣州地方에 司  
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을 設置하여 國家가 必要로 하는 沙器의 數  
와 量만큼을 직접 製造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分院의 成立이 이루어졌다  
고 믿어진다. ②5

따라서 世宗實錄地理誌의 陶磁所 三二四개소가 廣州의 分院이 成立  
되면서 東國輿地勝覽에는 四七개소로 줄어드는 점이나 沙器匠 三八〇  
名을 규정한 經國大典 工典이 一四六九年(睿宗元年)에 만들어진 까닭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의 成立에는 一四二六年頃에 景  
德鎮에 設置되어 明의 官、御用 陶磁를 燔造하던 임무를 맡았던 「御器  
廠」 ②6의 構成과 역할이 그 시기에 朝鮮朝에 자국이 되어 良質의 白  
磁、靑華白磁를 동경할도 分院이 成立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分院이 成立한 時期로는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바뀌고 처음으로 靑華  
白磁를 燔造하기 시작했던 世祖(一四五五~一四六八年)年間에 全國에서  
도 品上의 磁器를 만들어 내고 서울과 가까웠던 京畿道 廣州地方의 中  
部面 樊川里一帶에서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이 設置되어 國家가 必要로 하

는沙器를 燻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分院의 成立은 朝鮮時代 陶磁器의 수급체제의 變化를 물고와 歲貢別貢으로 國家가 必要로 하는 沙器를 贈與하던 體制에서 國家가 必要로 하는 沙器를 國家가 직접 沙器製造場을 만들어 贈與하는 體制로 바뀌어 따라 朝鮮時代 陶磁史에 큰 變化를 갖고오는 根本原因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世祖年間까지 全盛을 누리던 粉靑沙器 製作이 分院이 設置되는 世祖, 成宗年間을 境界로 크게 變하여 粉靑의 경우 官用的 印花文粉靑에서 民間所用的의 귀얄文粉靑이나 덤방문粉靑으로 바뀌면서 점차 粉靑沙器가 白磁를 닮아가다 결국은 스스로 소멸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粉靑沙器의 소멸이 壬辰倭亂으로 인한 陶窯시설의 파괴와 陶工들의 남치에 의한 것이라는 外部的인 원인보다도 內的 要因으로, 조선시대 陶磁의 수급체제의 變化에서 비롯된 分院의 成立과 發展에 그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으나 생각되는 것이다.

粉靑沙器가 印花文, 象嵌文에서 世祖年間을 境界로 귀얄文으로 바뀌는 內的 要因은 分院의 成立으로 인한, 白磁의 보편적인 使用으로 粉靑沙器는 점차 民間所用的의 磁器로 變化했으며 그나마 表面이 白色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白磁와 닮아가면서 粉靑沙器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가는데에 粉靑沙器 소멸의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廣州에 設置되었던 分院은 燻木의 조달을 위해 樹木이 茂盛한 곳을 찾아 移動하였음은 처음 설치되었다고 보여지는 樊川里一帶의 窯址에서 發見되는 同質, 同種의 陶片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더욱 窯址에서 發見되는 「天」 「地」 「玄」 「黃」 銘이 陰刻된 극히 우수한 白磁片의 비슷한 모습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發見되어 위의 分院의 成立과 設置지역 및 移動에 대한 추정을 뒷받침 해 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分院의 成立은 世祖年間(一四五五~一四六八)에 이루어졌으며 그 設置지역은 그 당시 「品上」의 磁器를 製作하던 廣州郡 中部面伐

乙川(樊川里) 一帶에서 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二、分院의 變遷

朝鮮朝 一五世紀 中葉頃인 世祖(一四五五~一四六八)年間に 成立되어 廣州地方에 設置된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의 「分院」은 처음에는 그 당시 全國에서도 「品上」의 磁器를 製作하던 京畿道 廣州郡 樊川里(代乙川)一帶의 窯에서 시작되어 沙器製造에 必要한 燻木의 조달을 위해, 樹木이 茂盛한 곳을 찾아 대략 十年을 주기로 廣州一帶의 司饗院의 柴場인 六個面을 中心으로 移動하여 다니다가 一八世紀前半頃부터 分院 固定論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고 製品 공급지가 가까운 慶安川의 金沙里를 거쳐 分院里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白土는 물론 柴木까지도 운반하여 使用하였으며 朝鮮末 分院이 民營化되는 一八八三年까지 分院里에 分院이 固定되어 沙器를 燻造하였다.

그러므로 一五, 一六, 一七, 一八세기 前半까지는 廣州郡內 六個面에 樹木茂盛處를 따라 分院이 옮겨다녔으므로 分院이 設置되었던 窯址를 순차적으로 찾아내어 分院이 朝鮮初부터 末까지의 變遷과정은 세 위보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朝鮮時代 陶磁器의 發達史를 파악할 수 있는 陶磁史 研究에 한 밑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文獻記錄에 나타난 製作年代가 뚜렷한 窯址와 銘文 및 干支가出土되어 그 製作時期를 추정해 볼 수 있는 窯址를 中心으로 分院의 變遷過程을 各世紀 別로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一五世紀分院·樊川里九號窯址→道馬里一號窯址→武甲里二號窯址  
→牛山里九號窯址

一六世紀分院·梧田里一號窯址→新岱里一八號窯址→觀音里二一號窯址  
→陶水里四號窯址→大雙嶺里一號窯址→昆池岩里二號窯址  
→鶴東里五號窯址→觀音里四號、五號、一〇號、一一號窯址

→亭支里三號窯址

一七世紀分院…炭後里一號窯址→鶴東里九號窯址→? →祥林里

一號窯址→仙東里一號窯址→松亭里一號窯址→柳寺里三號窯

址→新垌里一〇號窯址→池月里一號窯址→觀音里一七號、一

八號、一九號里窯址

一八世紀分院…宮坪里一號窯址→五香里三號、四號窯址→金沙里二

號、七號窯址→分院里一號窯址

一九世紀分院…分院里二號窯址

以上の朝鮮時代分院の變遷史는 現在까지 廣州에 있어 定說처럼 되어 있는 道馬里→金沙里→分院里 中心의 단조로운 移動을 좀더 보완시켜 구체적인 移動모습을 확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각 製作時期에 따른 陶磁器의 發達과정을 各窯址에서 수집된 陶片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따라서 本論文의 主題인 『朝鮮時代分院의 變遷에 관한 연구가 朝鮮時代 陶磁器 發達史의 核心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어본다.

### VI, 結 言

京畿道 廣州郡 一帶에 널리 있는 二〇五個所에 달하는 陶窯址調査를 통하여 蒐集된 陶片資料와 文獻記錄에 나타난 陶窯址資料를 기본으로 하여 朝鮮朝 一五世紀 中葉頃에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이 廣州地方에 設置되어 一九世紀 末까지 영위되었던 分院의 變遷過程을 추적하였다. 本 研究는 먼저 司饗院과 分院의 沿革, 構成, 施設, 磁器에 관해 정리하고 다음으로 廣州郡一帶의 二〇五個所窯址 中 代表的인 窯址들의 位置, 出土陶片의 특징, 製作年代 등을 記錄하고 다시 文獻記錄, 窯址出土의 銘文資料, 굽의 種類, 陶磁種類 등에 따라 分析과 綜合을 토대로

分院의 成立時期와 場所 및 成立背景, 原因과 分院의 變遷過程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모든 調査結果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의 分院은 朝鮮朝 一五世紀 中葉頃 世祖(二四五~六八)年間에 成立되어 廣州地方의 「品上」의 磁器를 製作하던 伐乙川(樊川里) 一帶에서 設置 시작되었다고 보이며, 그 設置 당초부터 司饗院에서 직접 管掌하였다. 分院이 언제부터 「分院」으로 불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沙器製造場의 규모가 커지고 御用 및 宮中에서의 沙器需要量이 증가됨에 따라 製造作業 자체가 중요시 됨으로써 직접 現地에서 製造作業을 관할하는 관청이 설치되어 이를 司饗院의 分院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2) 一五世紀前半頃에는 國家가 必要로하는 沙器를 全國의 陶磁所에서 歲貢, 別貢으로 充當하여 왔으나 一五世紀 中葉頃부터 國家가 必要로하는 沙器를 전국 陶磁所에서 歲貢, 別貢으로 充當하지 못할 만큼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 크게 노출되어 司饗院에서는 스스로 서둘러서 沙器匠을 法制的으로 소속시키고 官御用 沙器燒造를 직접 담당하여 沙器製造場을 設置한 데에 分院의 成立 理由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점차로 白磁는 發達하고 반대로 粉靑沙器는 소멸해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3) 分院이 設置된 후 燔木의 조달을 위해 樹木이 茂盛한 곳을 따라 十年을 주기로 移動하였으며 一七世紀 末부터 대두된 分院固定論에 따라 一七五二年 分院里에 分院이 固定되기 까지 三〇〇여년간을 司饗院이 國家로 지급받은 廣州 六個面의 分院柴場內를 옮겨 다녔으며 그 발자취를 최근 調査된 二〇五個所의 窯址를 통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 朝鮮時代 陶磁史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었다.

4) 窯址出土의 銘文에 따른 時期區分은 「天」「地」「玄」「黃」의 경우 一五世紀 中葉부터 一六世紀 前半까지 使用되었다고 보이며 「別

「左」「右」銘이 그 뒤를 이어 一六세기 中葉부터 末까지 使用되었다고 믿어진다. 그 뒤를 이어 一七世紀 初半부터 後半까지 「干支左」「干支右」「干支別」의 干支가 있는 銘文이 出土되며 一八世紀에 들어가는는 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銘文이 극히 적게 나타난다. 이를 表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다.

5) 굽형태로는 대마디굽, 오목굽, 수직굽, 넓은굽으로 區分할 수 있으며, 대마디굽은 태토비집들 받침으로 포개구운 灰白磁에 나타나며 一五세기, 一六세기에 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주변窯로서 그 中心에 가는모래받침의 「天」「地」「玄」「黃」「別」「左」「右」銘이 出土되는 수직굽백자窯가 있어 주목되었고 오목굽은 굽은 오래받침의 오목한 灰色의 질은 白磁에 나타나며 一六세기 末부터 나타나 一七, 一八세기에 주로 만들어졌으며 주변窯로서 그 中央에 가는모래받침의 「干支別」「干支左」「干支右」銘이 出土되는 中心窯의 주변에서 出土되며 넓은굽은 一七세기 前半頃에 가는모래받침의 「干支」가 出土되는窯에서만 發見되며, 수직굽은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變化는 있지만 變함없이 中心窯에서 匣鉢을 使用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모든 銘文과 靑華, 靑磁片 등이 出土되는 分院이라고 추정되는窯에서 發見되는 굽이다.

6) 朝鮮前代 靑磁는 白磁胎土 위에 綠靑色의 釉가 施釉되었고 氷裂이 미세하게 나있다. 分院窯라고 생각되는 白磁窯에서 수많은 白磁와 함께 少量이 發見되며 접시, 沙鉢, 壺, 祭器片이 많다. 文獻에 依하면 東宮用으로 使用되었다고 하며 그 제작시기는 一五세기 一六세기 一七세기 중엽까지 製作되었다.

7) 靑華白磁는 가는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窯에서만 發見되며 一

五세기 후반 경부터 一六세기, 一七세기 경까지는 少量이 만들어지다가 一八세기에 들어 金沙里, 分院里窯址에서 多量 發見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鐵繪白磁는 一六世紀 後半頃부터 만들어져 一七세기에는 거의 모든窯에서 만들어지다 一八세기 중엽 이후로는 드물게 만들어지며, 代表的인窯로는 新岱里一帶의窯로서 주목된다.

8) 文獻記錄에 나타나 실제 조사 확인된 製作年代가 확실한 分院은 一六六五 ~ 一六七六의 新岱里窯址, 一六七七 ~ ? 塔立洞(池月里)窯址 一七一七 ~ 一七二〇 五陽洞(五香里)窯址 一七五二 ~ 一七八三 分院里窯址이며,

金沙里窯의 경우 위의 分院의 發見으로 그 製作時期가 一七二二 ~ 一七五二 ~ 一七五一年 사이에 운영된窯로 雪白의 角이 진 우수한 壺, 祭器, 瓶, 盃 등의 靑華白磁片이 많이 發見된다.

9) 分院의 變遷過程을 各世紀 別로 세워보면 다음과 같다.

- 一五世紀分院·樊川里九號窯址 → 道馬里一號窯址 → 武甲里二號窯址 → 牛山里九號窯址
- 一六世紀分院·梧田里一號窯址 → 新岱里一八號窯址 → 觀音里二一號窯址 → 陶水里四號窯址 → 大雙嶺里一號窯址 → 昆池岩里二號窯址 → 鶴東里五號窯址 → 觀音里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窯址 → 亭支里三號窯址
- 一七世紀 分院·炭筏里一號窯址 → 鶴東里九號窯址 → ? → 祥林里一號窯址 → 仙東里一號窯址 → 松亭里一號窯址 → 柳寺里三號窯址 → 新岱里一〇號窯址 → 池月里一號窯址 → 觀音里一七號, 一八號, 一九號窯址
- 一八世紀分院·宮坪里一號窯址 → 五香里三號, 四號窯址 → 金沙里一號 ~ 七號窯址 → 分院里一號窯址
- 一九世紀分院·分院里二號窯址

(國立中央博物館學藝室)

註

23 崔淳雨, 「考古美術」一九六五, 道發馬里掘調査略報、

24 經國大典, 序文(徐居正)參照

25 權丙卓, 「李朝初期 陶磁手工業經營의 性格」東洋學研究所, 一九七八, P.六六。

26 註20 참조

27 姜萬吉「分院研究」亞細亞研究 一九六五, P.六

28 年代가 확실한 粉靑沙器資料 A

年代가 확실한 白磁資料 B 참조。

〈年代가 확실한 粉靑沙器資料 A〉

- 1) 一四〇四 粉靑沙器象嵌小盃外(崔雲海公墓出土)(국박소장)
- 2) 一四〇八~一八 粉靑沙器印花(敬承府)銘 접시, (개인소장)
- 3) 一四一二~二四 粉靑沙器象嵌草花文四耳壺(貞昭公主墓出土), (국박소장)
- 4) 一四一七~二〇 粉靑沙器象嵌「恭安府」銘 대접, (국박소장)
- 5) 一四一七~二二 粉靑沙器印花「仁寧府」銘 대접, (日本소장)
- 6) 一四三一 粉靑沙器彫花剝地蓮魚文骨壺(高峰和尚舍利塔內出土)
- 7) 一四三五 靑磁象嵌墓誌(宣德十年銘), (이대소장)
- 8) 一四四〇 粉靑沙器象嵌蓮魚文盤形墓誌(正統五年銘), (남궁련소장)
- 9) 一四四一 靑磁象嵌墓誌(正統八年銘), (국박소장)
- 10) 一四五〇 粉靑沙器象嵌墓誌(景恭元年銘), (국박소장)
- 11) 一四四九 粉沙器象嵌 원통형墓誌(正統十四年銘)(호암소장)
- 12) 一四五四 粉靑沙器 귀알文壺(溫寧君墓出土)(국박소장)
- 13) 一四五五~五七 粉靑沙器印花文(德寧府)銘 대접(국박소장)
- 14) 一四六二 粉靑沙器印花文壺(月山君胎峰出土)(日本소장)
- 15) 一四六四 砂靑沙器印花文墓誌(天順八年銘)(日本소장)
- 16) 一四六六 鄭氏白磁象嵌墓誌(호암소장)
- 17) 一四六七 尹增白磁象嵌墓誌(국박소장)
- 18) 一四七六 以前, 白磁象嵌打盞(大)殿銘(이흥근소장)

〈年代가 확실한 白磁資料 B〉

- 1) 一四三二~六八 鄭斌銘 靑華白磁梅花文접시, (간송소장) 미술자료
- 2) 一四七六 王女阿兄氏 胎缸, 誌石, (고대소장) 고문화
- 3) 一四八一 王女阿兄氏 胎缸, 誌石, (이대소장) 고고미술
- 4) 一四八五 王女合歎 阿兄氏 胎缸, 誌石(국박소장)
- 5) 一四八九 弘治二年銘 靑華白磁 梅松文壺(동대소장)
- 6) 一五〇一 王子敦壽 阿兄氏 胎缸, 誌石(국박소장)
- 7) 一五〇五 王子敦壽 阿兄氏 胎缸, 誌石
- 8) " 王女貞壽 阿兄氏 胎缸, 誌石(이흥근소장)
- 9) 一五一一 正德六年銘 白磁壺(日本소장)
- 10) 一五一四 正德九年銘 白誌壺(日本소장)
- 11) 一五一六 李頻公 白磁陰刻墓誌 白磁明器(개인소장)
- 12) 一五一九 正德十四年銘 白磁壺(日本소장)
- 13) 一五二二 嘉靖元年銘 白磁壺
- 14) 一五二八 王男崇壽 阿兄氏 胎缸, 胎誌石(경주박소장)
- 15) 一五二九 嘉靖八年銘 白磁壺(日本소장)
- 16) 一五三八 朴成樑 白磁墓誌(광주동신고소장)
- 17) 一五五三 金以礪 白磁墓誌
- 18) 一五五九 韓紀 白磁陰刻墓誌(이대소장)
- 19) 一五六八 淑儀 尹氏 靑華白磁墓誌(이대소장)
- 20) 一五六九 王子 全城君 靑華白磁墓誌, 白磁壺(국박소장)
- 21) 一五七七 宗室女 李氏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 19) 一四八一 白磁象嵌墓誌(成化一七年銘)(부산시립박소장)
- 20) 一四八七 粉靑沙器 귀알문 墓誌(成化二十三年銘)(국박소장)
- 21) 一四九〇 粉靑沙器 귀알文 墓誌(弘治三年銘)(국박소장)
- 22) 一五〇一 粉靑沙器 귀알文 墓誌(弘治十四年銘)(이대소장)
- 23) 一五四〇 粉靑沙器 귀알文 墓誌(嘉靖十九年銘)(국박소장)
- 24) 一五六三 粉靑沙器 귀알文 硯(嘉靖四十二年銘)(日本소장)
- 25) 一五八七 粉靑沙器 귀알文 墓誌(萬曆十五年銘)(日本소장)

22)	一五七八	鄭大年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3)		由世霖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4)	一五八九	廣川君 青華白磁墓誌、白磁壺(국박소장)
25)	一五九一	韓宗貢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26)	一六〇一	張逸 白磁鐵繪墓誌(국박소장)
27)	一六〇三	王女公主阿兄氏 胎缸、胎誌石(국박소장)
28)	一六〇六	仁興君 第一子 白磁胎誌접시(국박소장)
29)	一六一九	淑儀鄭氏 青華白磁墓誌(이대소장)
30)	一六二一	天啓銘 青華白磁盆台(日本소장)
31)	一六二六	仁興君 第一女 白磁胎誌접시、胎缸(국박소장)
32)	一六二七	” 第二小主 ” ” ”
33)	一六三二	” 第三小主 ” ” ”
34)	一六六八	閔天瑞 白磁鐵繪墓誌(전남대소장)
35)	一六七〇	康熙九年銘 白磁胎缸 및 胎誌石(서재식소장)
36)	一六八三	淑人洪氏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37)	一六八四	朴曾求 白磁辰砂 접시形誌石(개인소장)
38)	一七〇二	尹釵續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39)	一七〇七	沈公 青華白磁墓誌(국박소장)
40)	一七六四	權大臨 白磁鐵繪墓誌(광주동신고)

# 貞節公 朴光佑선생의

## 遺蹟·遺物

李 元 根

### 一、序 論

古代의 棺·槨은 墓의 侵濕을 방지하기 위해 찰흙을 사용한 바 있다. 또 王陵의 경우 封墳의 護石 등 많은 裝置을 해 왔으나 朝鮮 世祖의 光陵(一四六七)부터 王의 遺言에 의해 壙을 파고 棺을 내린 다음 三物灰로서 단단히 쌓아버리는 「灰隔墓」로 변했으며 이것이 朝鮮末까지 계속되었다<sup>①</sup>. 一般 民間人 墓의 경우도 灰隔王陵形式을 縮小簡略化한 灰被木槨墓의 一식이었으나 世祖의 兄 溫寧君(一四五四年 歿)의 墓는 土壙을 파고 長 三·一m, 幅 一·二m, 高 一·一五m의 石槨(六枚板石)속에 木槨과 副葬品으로는 빈약한 白磁小形器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sup>②</sup>. 이것은 世祖時代인 一五世紀 中半에 우리나라의 墓制가 一大轉換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一九六七年 二月 京畿道 坡州郡 條理面 梧山里에 있던 朝鮮中宗朝의 文臣 朴光佑 선생의 墓所를 忠北 淸原郡 南二面 秀岱里로 移葬하다가, 木槨灰隔墓의 形式과 그 遺物인 白磁小壺와 青華白磁碟墓誌 및 靑銅鈴, 등 一括遺物이 나온것이 一九八一年 六月에 뒤늦게 알려져서 당시의 墓制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생각되어 다루는 것이다.